LUX HUMANITAS

KYUNG HEE UNIVERSITY NEWSLETTER

VOL.19. 2015

경희대학교 뉴스레터

SPECIAL REPORT

02 '세계적인 미래대학' 향한 연계협력·인프라 구축

03 캠퍼스 종합개발사업 'Space21' 착공

06 경희 연계협력 클러스터 추진안 발표

FOCUS

08 경희교육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그리다

10 박광훈 교수, HEVC 국제표준 특허 등록

11 학부연구생, SCI 학술지 제1저자로 논문 게재

12 '미래대학' 지원하는 미래위원회

TODAY

14 2014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개최

15 2015학년도 1학기 합동교무위원연찬회 개최

16 대한민국 인재상 2명 배출

PEOPLE

17 경희 인물 동정

NEWS

18 경희 단신

LUX HUMANITAS 룩스 후마니타스

라틴어로 '인류애를 향한 빛'을 뜻하는 말로 평화와 공영을 추구하는 경희의 창학이념을 상징합니다.

9 772005 761002 42

ISSN 2005-716X

KYUNG HEE UNIVERSITY

SPECIAL REPORT

‘세계적인 미래대학’ 향한 연계협력·인프라 구축

2015년을 맞으며, 경희는 연계협력을 통해 ‘세계적인 미래대학’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관·산·학 협력과 글로벌 협력을 이끌어내며 연계협력의 가능성을 열어왔다. 대학의 핵심가치를 추구하며 교육, 연구, 실천의 탁월성을 만들어온 결과, 외연 확대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올해는 캠퍼스 종합개발사업 ‘Space21’ 착공을 시작으로 연계협력 인프라를 강화해 내적으론 탁월성을 다져가고, 외적으론 ‘외연 확대의 역동’으로 더 나은 경희의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다.

캠퍼스 종합개발사업 'Space21' 착공

서울캠퍼스·행복기숙사 사전 공사 착수, 국제캠퍼스 종합체육관 착공
연계협력 허브 글로벌타워, 공간·재원 계획 수립 중

'Space21' 1단계 사업으로 서울캠퍼스에 새로 들어서는 단과대학 건물(사진 왼쪽 이과대학·간호과학대학, 오른쪽 한의과대학).

학술경희의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캠퍼스 종합개발사업 'Space21'의 건축 인허가가 완료돼 첫 삽을 뜨게 됐다. 서울캠퍼스는 Space21 사업과 함께 추진되고 있는 대운동장 행복기숙사(공공기숙사) 사업의 인허가가 난항을 겪으면서 일정이 지연됐으나 지난 12월 12일, 실시계획인가 및 건축 허가가 완료돼 착공을 준비 중이다. 국제캠퍼스는 당초 사업 계획에 따라 2010년에 도시계획시설 및 건축 허가가 완료된 상태로, 건축 변경만 허가받으면 된다. 공간 계획이 확정된 종합체육관은 건축 변경을 허가받고 시공업체를 선정, 2015년 1월 착공에 들어갔다.

Space21 단계적 추진, 1단계 사업 2017년 완공 목표

경희는 안정적인 재정을 바탕으로 최적의 교육·연구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Space21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2017년 완공을 목표로 한 1단계 사업에는 서울캠퍼스의 한의과대학, 이과대학, 간호과학대학, 국제캠퍼스의 공과대학, 외국어대학, 종합체육관이 포함돼 있다. 2단계로는 글로벌광장과 글로벌타워 신축, 노후 건물의 리모델링을 실시한다.

조인원 총장은 총학생회 주최로 지난 11월 19일 열린 '총장과의 대화'에서 Space21과 관련해 "부족한 교육 공간과 연구·실험 공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랜 기간 준비해온 Space21이 일정대로 추진된다.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정 계획도 수립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부족한 실험·실습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서울과 국제캠퍼스 모두 이공계열 공간 신축에 우선순위를 뒀다"고 설명한 조 총장은 "현재 공간·재원 계획을 수립 중인 10층 내외 규모의 글로벌타워 신축이 확정되면 부족한 교육 공간 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캠퍼스 공과대학 평면 계획 구성원 소통 중

Space21은 '경희의 미래'를 건설하는 상징적 사업이라는 면에서 구성원과의 소통과 화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양 캠퍼스는 재정 안정성 확보와 함께 학생, 교수, 직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수차례 구성원 설명회를 거치며 구성원과의 소통 속에 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

1단계 사업과 관련해 구성원 협의를 마친 서울캠퍼스는 2013년 8월 28일, 도시시설(학교)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서울시에 접수하면서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순조롭게 진행되던 인허가는 행복기숙사 건립을 반대하는 일부 지역 주민의 민원으로 일정이 지연됐다. 이에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서명을 받아 동대문구청에 제출, 행복기숙사 건축 인허가를 요구했고, 대학은 당초 계획한 일정에 맞춰 Space21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서울시에 행정심판을 요청했다. 이후 행정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인허가를 승인받았다. 신축 건물들은 대운동장과 노천극장 주변에 배치된다. 이 건물들은 기존 건물과 조화를 이루며 내부와 외부, 건물과 건물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된다. 지형의 높낮이를 이용, 건물 사이에 열주 회랑·중정 등을 배치함으로써 원활한 소통이 가능해진다.

국제캠퍼스는 종합체육관이 착공에 들어간 데 이어, 외국어대학관이 착공을 앞두고 있다. 수용인원 2,000여 명 규모의 실내 경기장으로 이뤄진 종합체육관은 학생회관 뒤편(생명과학대학관 맞은편)에 신설된다. 외국어대학 건물은 증축이 논의됐으나, 공사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교육환경, 안전문제가 거론되면서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과 함께 외국어대학, 우정원 사이에 교수연구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 방향이 변경됐다. 공과대학은 평면 계획에 대한 구성원 소통을 진행 중이다. 국제캠퍼스의 고전적인 분위기와 향후 증축을 고려해 '돔' 구조물이 배치된 'ㄷ'자형 건물로 설계됐으나, 효율성 문제가 제기돼 구성원 의견 수렴을 거쳐 설계안을 수정하고 있다. 공과대학은 전자정보대학 옆 야구장 부지에 신축될 예정이다.

2단계 사업, 글로벌광장·글로벌타워 신축, 노후 건물 리모델링

Space21 2단계 사업은 현재 범위, 비용, 재원 조달 계획, 공사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1단계 사업을 통해 신축 건물로 이주한 단과대학의 기존 건물 활용 계획도 수립할 방침이다. 노천극장 부지에 새로 들어설 글로벌광장과 글로벌타워는 '경희의 미래'를 상징하게 될 공간으로 학문 간 경계를 넘나드는 교육, 연구, 실천이 어우러진 연계협력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리모델링이 검토되고 있는 건물은 서울캠퍼스의 문과대학, 정경대학, 음악대학, 미술대학, 한의과대학, 의과대학, 국제캠퍼스의 생명과학대학, 국제경영대학, 공과대학, 외국어대학, 전자정보대학, 학생회관 등 14개 건물이다.

Space21은 대부분의 단과대학 건물을 포함하는 대규모 건축사업이다. 경희는 공간 수요를 점검하고, 기존 공간을 최대한 활용, 신축 면적을 축소하며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계획도 수립했다. 1단계 사업에 필요한 1,751억 원은 5년 거치, 13년 상환 계획에 따라 2019년부터 13년 동안 연간 38~156억 원을 상환할 계획이다. 기채와 관계없이 건설비 확충이 가능한 재정사업 구조, 나아가 대학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산학협력, 비학위과정 개설, 교내 편의시설 활용, 법인 자산 운용 효율화, 성금 모금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학다운 미래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Space21

경희는 개교 60주년(2009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캠퍼스 종합개발사업 Space21 계획을 수립했다. 학술적 탁월성 위에서 세계적 명문대학으로 도약 발전하고, 그 성취를 실천으로 연결, 지구적 존엄(Global Eminence)을 구현하기 위해 창의적

관광대에서 바라본 서울캠퍼스 Space21 사업 전경

서울캠퍼스 글로벌타워(왼쪽 건물)

서울캠퍼스 행복기숙사(오른쪽 건물)

국제캠퍼스 종합체육관

교육과 연구 활동의 터전이 될 인프라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경희는 1953년 10월, 국내 대학 최초로 캠퍼스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지금의 서울캠퍼스를 건설했다. 1973년 국제캠퍼스 건설도 그 연장선에서 추진됐다. 경희학원 설립자 미원(美源) 조영식 박사는 서울과 국제캠퍼스가 본·분교의 개념이 아닌 각기 특성화된 종합캠퍼스로 발전하면서 '경희'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통합되기를 원했다. 그 구상에 따라 서울캠퍼스는 인문사회, 의학, 기초과학, 예술 등 순수학문 중심으로, 국제캠퍼스는 공학, 응용과학, 국제학, 현대예술, 체육 등 응용학문 중심으로 순차적인 편제 개편이 진행됐다. 1979년 '분교' 형태로 설립된 국제캠퍼스는 지난 2011년 8월 24일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로부터 서울캠퍼스와의 통합이 정식 승인됐다.

60년 전의 마스터플랜이 '문화세계의 창조'를 위한 기반이었다면 Space21은 '학문과 평화'의 전통 속에서 지구적 존엄을 구현하며 대학다운 미래대학, 세계적인 미래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사업이다. 미래를 위한 도전과 창조정신이 응축된 담대한 구상과 의지를 담고 있는 Space21 사업은 구성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수반될 때 실현될 수 있다.

"가치 공유해 자발적인 연계협력 참여 이끌어낼 것"

경희 연계협력 클러스터 추진안 발표, 세계적 융복합 학술기관 목표
바이오 헬스·미래대학·인류문명·문화예술·사회체육 등 5개 클러스터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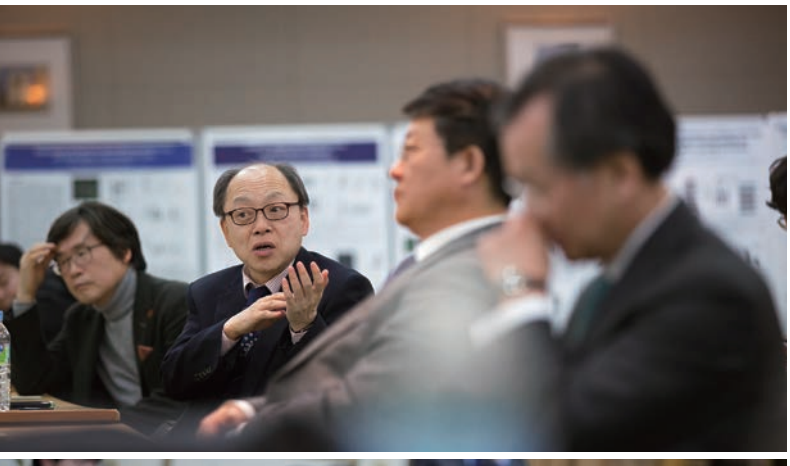
경희는 3년 전, '세계적인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으로 교내외 연계협력을 통한 클러스터를 계획했다. 연계협력 클러스터를 통해 세계적 융복합 학술기관으로 도약하고, 학술과 실천이 결합된 경희교육의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것이었다. 이후 '세계적인 대학'을 위한 역동성을 살려내기 위해 연계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뒤, 클러스터 운영 방안을 담은 추진(안)을 마련했다. '경희 연계협력 클러스터 추진(안)'은 지난해 연말, '매그놀리아(Magnolia) 2014'에서 발표됐다. 12월과 2월에는 '클러스터 발전방향 수립 워크숍'과 '바이오헬스 연계협력 워크숍'을 열고 구체적인 클러스터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정체성 잃지 않으면서 상생 가능한 자생 모델 만들어야"

조인원 총장은 '클러스터 발전방향 수립 워크숍'에서 "대학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기업, 정부, 사회, 세계와 상생할 수 있는 자생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학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희는 연계협력 클러스터를 기획했다. 연계협력 클러스터는 학과, 단과대학, 대학원, 연구소 등 경희의 기존 역량을 창의적으로 재구성하는 동시에 국내외 대학, 정부, 기업, 국제기구, 시민사회와 긴밀한 교류협력을 이뤄나가면서 세계적 수준의 융복합 학술기관으로 거듭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조 총장은 "연계협력 클러스터는 구성원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유연하게 만들어나가는 한편, 사회와 인류가 공감할 수 있는 미래가치를 만들어 국내외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여 교원·디렉터 선정, 추진사무국 구축 후 본격 추진

'경희 연계협력 클러스터 추진(안)'에 따르면, 클러스터는 하버드대의 글로벌 헬스 인스티튜트(Global Health Institute) 프로



경희 연계협력 클러스터는 기존 역량을 창의적으로 재구성하는 동시에 국내외 대학, 정부, 기업, 국제기구, 시민사회와 긴밀한 교류 협력을 이뤄나가면서 세계적 수준의 융복합 학술기관으로 거듭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램과 같이 교육, 연구, 실천 프로그램을 통합한 형태로 추진된다. 글로벌 헬스 인스티튜트는 희귀 질병을 조사·연구하고, 그 결과를 약품으로 전환해 전 세계 보건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양한 학문을 전공하는 교수들이 이 가치에 공감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는 하버드대 폴 파머 교수로부터 시작됐다. 아프리카 주민의 열악한 보건을 지원하고자 한 파머 교수는 풍토병 치료제를 개발하고, 비정부기구(NGO)를 설립해 자신이 연구한 치료제가 필요한 곳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남순건 미래정책원장은 "선진 클러스터 사례를 보면, 대학의 클러스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시대가 요구하는 분야를 선정해 자원을 집중하고, 정보와 자원 교류, 구성원 간의 상호연계를 촉발하는 핵심주도자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경희 연계협력 클러스터는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먼저 참여 교원과 클러스터별 디렉터 선정과 함께 추진사무국을 구축한다. 이후 클러스터 분류에 따른 추진 전략과 재정 확보 전략을 수립하고, 세계적 석학, 연구기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리더십·연계협력 가능한 환경 필요"

'클러스터 발전방향 수립 워크숍' 참가자들은 클러스터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리더십과 연계협력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한규 국제대학장은 "연계협력 클러스터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라며 "구성원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리더가 있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클러스터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백광희 생명과학대학장은 "생명과학대학은 대학원 과정인 생명공학원을 만들면서 단과대학에 소속된 모든 교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더니 자연스럽게 학과 간 교류협력이 생겼다"며 "학과를 넘어서는 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해 핵심주도자와 함께 구조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 - 사업화 - 연구 재투자 선순환 구조 구축해야"

'바이오헬스 연계협력 워크숍'에서는 의과대학, 이과대학, 동서의학대학원, 공과대학, 전자정보대학, 생명과학대학, 경희의료원,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등 서울과 국제캠퍼스, 의료기관 교수와 학생이 모여 바이오헬스 융복합 연구 사례를 공유한 뒤, 새로운 융복합 연계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했다.

많은 참가자들은 연구 결과가 사업화로 이어져 연구에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지속가능한 모델을 창출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연계협력의 사업화를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경희대학교 석좌교수(Eminent Scholar) 겸 하버드 의대 교수인 장익경 박사는 '의학과 혁신기술 통합센터(CIMIT)' 사례를 들려주며 "이 센터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연구가 목적이 아니라 과학기술을 산업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뒤, "탁월성을 만들어내는 것은 물론, 산업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의 융복합, 기업과의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계공학과 이원구 교수도 "학술적 융합 연구의 경우, 대부분 학문적으로 남는 경우가 많다"면서 "실용화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과 국제캠퍼스, 의료기관 구성원이 교류하고, 연구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유전공학과 손영숙 교수는 "대학과 병원의 기초, 임상 교수가 함께 코웍(Co-work)하면서 얻는 부분이 큰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소통"이라며 "생각을 공유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장소가 갖춰진다면 시너지 효과가 더욱 클 것"이라고 밝혔다. 박헌국 경희대 바이오의료기 개발센터장은 "서울과 국제캠퍼스는 거리 문제로 교류가 어려워 어느 교수가 어떤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서 "교수들의 기술, 연구 정보를 통합하는 시스템과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바이오헬스 연계협력 클러스터는 새로운 융복합 분야 창출은 물론, 기존 연구를 특화시키고 대형화, 지속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조민형 산학협력단장은 "교수 개인이 사업비를 지원받아 연구하다가 지원이 끝나면 연구가 중단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클러스터가 운영되면 이러한 연구를 지속해 사업화까지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희교육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그리다

후마니타스칼리지, 심화 프로그램 준비할 때
경희 무크(MOOC) 2.0, 5월 오픈

대학은 더 나은 개인과 사회, 인류의 미래를 추구하는 안목과 실천을 가르쳐야 한다. 이는 경희가 추구하는 교육의 핵심가치다. 이를 위해 경희는 비판을 넘어 대안적 사유를 키울 수 있는 교육체계를 갖춰왔고, 2012년에는 교육사업추진단을 설립해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체계적인 사업을 기획·추진해왔다.

지난해 연말부터는 경희교육포럼, 경희 융합교육 대토론회, 교양교육 학술 심포지엄 등을 개최해 경희교육의 과거와 현재를 성찰하고, 교육 수혜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대안적 사유 키우는 교육체계 강조

11월 26일 열린 '경희교육포럼'에서 조인원 총장과 참가자들은 질의응답을 통해 경희교육의 철학과 비전을 공유했다. 조인원 총장은 "전문지식의 깊이를 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접 학문과의 소통이 학생들의 사유의 폭과 깊이를 더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이러한 배움을 통해 학생들은 비판적, 대안적 사유의 힘을 키워 스스로 더 나은 미래를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안적 사유가 대안으로 남기 위해선 현실 세계에서 공감을 만들어내야 한다"면서 실천을 전제로 한 대안적 사유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라운드테이블에서 교수들은 대학의 이념과 가치를 통해 교육의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회학과 김중백 교수는 "경희교육의 정체성 구현과 함께 사회가 원하는 인재, 지식을 재창조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희교육의 정체성은 교양, 전공, 진로교육이 유기적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진로교육은 단순한 취업이 아니라 1학년부터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고민하도록 가르쳐 자신의 전공과 경희정신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리학과 지상현 교수도 "구성원과의 논의를 통해 경희만의 이미지와 교육브랜드를 만들자"면서 후마니타스칼리지로 대표되는 전인적 교양교육을 강조하는 교육브랜드에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 성장하는 인재상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학생들은 경희교육을 통해 성찰의 기회를 갖게 됐다고 전했다. 김재영(국제학과 10학번) 학생은 "경희대는 후마니타스칼리지 수업과 전공연수 프로그램, 취업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생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면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발전할 수 있었고, 대학에 자부심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학생 의견 수렴해 교육과정에 반영

'경희 융합교육 대토론회'는 11월 6일 국제캠퍼스 멀티미디어관에서 개최됐다. 허균영 융합교육지원센터장은 "경희 융합교육은 인류문명, 미래과학, 문화예술, 바이오헬스, 사회체육 등 5대 클러스터와 융합하고, 학생 스스로 전공을 설계하는 학습자 중심, 기존 학과에서 개설·운영 중인 융합교육과정에 기반을 둬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융합교육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무엇보다 '학생'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그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융합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융합교육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최형원(환경학 및 환경공학과 12학번) 학생은 "융합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사고의 폭이 넓어졌다"며 "비 교과과정에서 융합교육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전했다. 이준복 공학교육혁신센터장은 "사회에서는 주어진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제기하고 만들어내는 창의적 융합인재가 필요하다"면서 "이 같은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융합교육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융합교육을 학과 특성에 따

경희는 학술과 실천이 결합된 교육을 구현하는 창의적 교육 모델을 만들기 위해 포럼, 토론회, 심포지엄 등을 개최해 교육 수혜자인 학생과 교수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라 도입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최역인(생체의공학과 10학번) 학생은 "융합도 중요하지만, 학과에 따라서 하나의 전공을 깊이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허균영 센터장은 "전공이 다른 사람들과 융합하는 문화 속에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융합교육이 필요 없는 학과도 있고 특정 학과의 틀에서 융합교육을 할 수 없는 학과도 있다"며 "학과 특성에 따른 프로그램 개선과 제도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교양교육 학술 심포지엄
"'후마교육' 실천활동의 기회 제공"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들은 1월 30일, 올해 첫 신입생 졸업을 앞두고 지난 4년간의 성과와 과제, 미래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제5회 교양교육 학술 심포지엄'에서 교수들은 중핵교과, 시민교육, 글쓰기, 예술교과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인간과 인류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 자신과 세계를 변화시키는 실천 활동의 기회를 제공했다고 평가한 뒤, 이를 실제 삶 속에 지속시키기 위해 교육 심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타 교과과정과의 연계를 통해 학제 간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신충식 교수는 "철학자, 사회과학자, 과학자, 사학자, 문학비평가, 시인, 소설가, 지역연구가, 예술가 등이 교류하면서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후마니타스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자들 간의 학제 간 교류를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효선 교수는 "하나의 교육 목표를 가진 후마니타스칼리지 안에서 내적 연관을 확보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면서 "다양한 연계방식을 연구해나갈 열린 학습공동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미래 고등교육기관 모델 제시

경희는 미래 고등교육기관의 새 모델로 온라인 대중 공개강좌 '경희 무크(MOOC) 2.0'도 기획했다. 경희 무크는 대학과 사이버대의 공동 태스크포스를 통해 시험 버전을 테스트한 뒤, 5월 중 선보일 예정이다.

경희 무크 2.0은 아시아, 아프리카의 현지 공동체 요구에 맞는 문화 공적개발원조(ODA), 음악을 매개로 한 시민교육, 기후변화 코스 등의 교육 내용을 온라인과 온·오프라인 융합형 프로그램으로 준비 중이다. 이 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현지 대학과 다양한 비정부기구(NGO)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개발도상국 지구시민교육을 위한 교육과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관련 내용은 미국 고등교육신문 〈더 크로니클 오브 하이어 에듀케이션(The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 영국 대학전문지〈유니버시티 월드 뉴스(University World News)〉 등 해외 언론에 소개됐다. 경희사이버대 안병진 부총장은 "경희 무크 2.0은 동서양의 새로운 보편적 내용과 각 지역의 특수성을 구현하고 있으며, 전 지구적 협력과 실천, 영어와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인구층에 대한 포괄적 접근으로 기존 무크의 한계를 넘어선 새로운 미래 고등교육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광훈 교수, HEVC 국제표준 특허 등록

〈컴퓨터공학〉

전 세계 대학 세 번째로 특허 확보, 20년간 로열티 받아

"특허 확보 통해 장기적으로 로열티 받아 연구하는 선순환 구조 만들어야"

컴퓨터공학과 박광훈 교수가 개발한 동영상 압축기술이 차세대 고효율 동영상 압축기술 'HEVC(High Efficiency Video Coding)'의 국제표준 특허로 등록됐다.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카이스트에 이어 전 세계 대학 세 번째로 HEVC 국제표준 특허를 확보했다. 이로써 경희대학교는 앞으로 20년간 전 세계에서 로열티를 받게 됐다.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HEVC/H.265는 대용량 동영상 데이터를 압축하는 코딩기술로, 인터넷과 모바일에서 보다 빠른 속도로 고화질 동영상을 매끄럽게 볼 수 있게 한다. 이 기술은 현재 UHD(초고화질) TV, 스마트폰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고, 국제표준 채택으로 전 세계 모든 IT 관련 정보 가전에 필수로 탑재될 예정이다. 박광훈 교수는 HEVC/H.265 외에도 MPEG-4, VC-1, AVC/H.264 등 국제표준 제정에 기여하고 해당 표준 규격 관련 핵심 기술을 채택시켰다. 그가 보유한 특허는 국제 95건, 국내 91건에 달한다. 경희대 산학협력단 기준 특허 기술이전 10억여 원을 이루는 성과도 거뒀다. 박광훈 교수는 영상통신 분야의 국제표준 특허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로열티 수익 창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4 세계 표준의 날' 근정포장도 수상했다.

국제표준에 특정 기술을 제안해 채택시키는 과정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동영상 관련 국제표준은 여러 기술이 집약돼 있어 그 어떤 기술보다도 뛰어난 성능을 인정받아야 한다. 박광훈 교수는 "공학자는 '최고'가 아닌 '최적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최적화된 기술을 개발하며 국제표준을 선점해왔다. "최적화된 기술은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 사용자가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기술이며, 이 같은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사용자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광훈 교수는 오늘날의 성과를 거둔 것은 20년 이상 '한 우물'을 팠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그가 국제표준 기술 개발과 연구를 시작한 것은 1995년이다. 기업에서 특허의 중요성을 알게 됐고, 2001년 경희대학교에 부임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국내외에서 특허를 출원·등록해왔다. 학생들에게도 기술과 지식이 수익 창출로 이어지는 지(知) 테크의 중요성을 가르치며 논문보다 특허가 먼저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논문을 먼저 내면 특허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특허출원 후 논문을 발표하고, 특허관리기관을 통해 장기적으로 로열티를 지급받아 연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박광훈 교수가 운영하는 미디어랩 연구실에서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첨단 핵심 원천기술을 연구해 특허출원, 국제표준, SCI 논문, 기술이전, 로열티 징수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학부연구생, SCI 학술지 제1저자로 논문 게재

박주현 학생, 선박용 소형원자로 개발에 활용 가능한 연구 결과 발표
이상무 학생, 투명 산화물 반도체의 광센서 가능성 제시

학부연구생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국제 학술지에 우수한 논문을 게재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박주현 학생, 이상무 학생.

경희대학교는 학생들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왔다. 학부연구생 프로그램이 그 중 하나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최근 국제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 학술지에 제1저자로 논문을 게재하는 성취를 거두고 있다. 원자력공학과 박주현(09학번) 학생은 열과 물질전달 분야 권위지인 〈International Communications in Heat and Mass Transfer〉 12월호, 정보전자신소재공학과 이상무(09학번) 학생은 응용물리학 분야의 권위지 〈Applied Physics Letters〉 1월 26일자 온라인판에 논문을 게재했다.

'기울어진 도관 내부의 헬리컬(Helical, 나선) 코일의 자연대류 열전달'을 연구한 박주현 학생은 기존 직관형 열교환기보다 공간대비 효율이 높은 헬리컬 코일 열교환기에서 발생되는 열전달 현상을 조건을 바꿔가면서 실험적으로 관찰했다. 지도교수인 원자력공학과 정범진 교수는 "선박용 원자로를 소형화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평가했다.

박주현 학생은 "학부생으로서 1년간 연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2/3 이상 실험을 진행했다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때도 있었지만, 연구하는 재미를 느끼고 전공을 깊게 배울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매주 지도교수님과 대학원생 앞에서 실험결과를 발표한 후, 지도교수님께 연구 방향과 방법 등에 대해 일대일 지도를 받았던 것이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정범진 교수는 "이번 논문 게재는 대학원생보다 상대적으로 연구 경험이 부족한 학부생이 연구를 주도하고 제1저자로 참여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면서 "대학원생이 돼야 우수한 논문을 쓸 수 있다는 통념을 깨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상무 학생은 InGaO 박막 트랜지스터에 양자점(Quantum-dot)을 코팅했을 때 광전류가 개선되는 것을 밝혀냈다.

투명 전자소자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산화물 반도체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산화물 반도체는 가시광선 영역의 빛을 잘 흡수하지 못해 광센서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상무 학생은 양자점을 활용해 이 한계를 극복했다. 지도교수인 정보전자신소재공학과 강성준 교수는 "산화물 반도체에 양자점을 융합함으로써 가시광에 투명하면서 가시광선을 센싱할 수 있는 투명한 산화물 광센서 개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수업과 연구를 병행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연구를 통해 전공을 심도 있게 체험할 수 있어서 공부에 큰 도움이 됐고, 학점도 좋아졌다"고 전한 이상무 학생은 학부연구생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현재는 양자점을 이용한 차세대 디스플레이(QLED)를 연구 중이며, 대학원에 진학해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다.

김연수 동문

이태원 동문

‘미래대학’ 지원하는 미래위원회

거교적 성금캠페인 ‘Global Trust’ 기금 15억여 원 조성
미래위원 주축으로 경희 발전방향 자문

경희의 미래비전에 공감한 동문과 구성원의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9월 26일, ‘대학다운 미래대학’의 길을 자문·지원할 ‘경희미래위원회’를 출범시킨 이후, 미래를 향한 경희의 담대한 꿈과 지구적 신뢰의 여정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다. 경희는 개교 65주년을 맞은 2014년 한 해 동안, ‘나의 미래, 대학의 미래, 인류의 미래’를 위한 논의를 통해 구성원의 꿈과 희망을 담은 ‘경희미래리포트’를 만들어가는 한편, ‘경희미래위원회’를 운영해 그 길의 실현을 준비해왔다.

대학·사이버대·의료기관 공동 참여

경희미래위원회는 소통과 융합, 변화와 개방, 나눔의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경희대학교, 경희사이버대학교, 경희의료원,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다. 출범 후, 기관별로 시행해오던 학술과 평화를 통한 공적 실천영역의 한계 극복과 ‘지구공동사회’를 지향하는 미래대학 건설을 위해 ‘글로벌 트러스트(Global Trust)’를 캐치프레이즈로 성금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글로벌 트러스트 기금 15억여 원을 모금했다. 미래위원회 김연수(한의학과 63학번, 김한의원 원장) 동문과 유명철 의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이태원(의학과 74학번, 미래위원회 사무총장) 동문이 각각 2억 원, 조서환(영문과 79학번, 조서환마케팅그룹 회장) 동문이 1억 5천만 원을 쾌척했다. 최재영(경영학과 71학번, 거봉 INC 대표이사) 동문, 권영욱(의학과 74학번, 영서의료재단 회장) 동문, 하태수(약학과 77학번, 백두산약국 대표) 동문, 김근식(원예학과 80학번, 동방침구제작소 대표이사) 동문, 오주환(화학과 84학번, 재우엔프라 회장) 동문,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각각 1억 원을 기부했다.

“모교 발전 위해 십시일반 기금 모으길”

김연수 동문은 “대학에 다니기 어려운 형편이었는데, 장학금을 받아 무사히 졸업하고 한의사로 살 수 있게 돼 모교에 늘 빚이 있다고 생각했다”면서 “그 빚을 갚는다는 마음으로 조금씩 기부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그는 장학금, 건축기금 등으로 6억 원 이상을 기부한 바 있으며, 이번에 2억 원을 더해 총 8억여 원을 기부했다.

조서환 동문은 “경희대에서 학부, 석사, 박사 과정을 마치고 겸임교수로 지내면서 많은 것을 받았다. 받은 것을 돌려줘야겠다는 생각만 하다가 이번에 30년 이상 모은 월급 일부를 기부하게 됐다”고 밝혔다. “기부는 돈이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의 일부를 나누는 것”이라는 생각을 밝힌 그는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후배들과 모교 발전을 위해 많은 동문들이 십시일반으로 기금을 모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희의 위상이 곧 동문의 위상”

하태수 동문은 “학창시절에도,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경희인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최근 대학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자부심이 더 커졌다”며 “미래위원회의 설립 목표에 따라 조성된 기금이 잘 운영돼 대학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권영욱 동문도 “경희의 위상이 곧 동문의 위상이라고 생각한다. 모교의 위상 제고를 위

유명철 석좌교수

조서환 동문

해 우수한 인재 양성에 동참하고 싶다"며 기부금을 전달했다.

김성민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은 "의과대학 발전을 위해 전체 교수들이 기금을 모았다"며 제자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글로벌 트러스트 기금 1억 원과 경희암병원 기금 1억 원을 기부한 유명철 석좌교수는 "경희에서 보낸 40여 년의 재직생활을 마무리하며 대학과 의료기관 발전에 기여하고, 기부 손길이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부를 결정했다"면서 "은퇴교수를 비롯한 원로교수들이 기부에 앞장서, 기부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희 발전 지원하는 기부문화 확산되길"

이태원 미래위원회 사무총장은 "미래위원회 출범 후, 동문, 구성원들과 경희의 창학정신, 미래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많은 동문과 구성원들이 이에 공감하고 기부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애교심을 갖고 경희 발전을 위한 다양한 생각을 들려준 기부자들을 만나면서 희망이 생겼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기회를 통해 경희 발전을 지원하는 기부문화가 확산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경희미래위원회는 동문과 구성원, 학부모,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기부 캠페인 '글로벌 트러스트 월(Global Trust Wall)'도 추진하고 있다. 기부자의 이름을 새겨넣은 '월'은 서울캠퍼스 청운관 로비에 설치될 계획이다. 미래위원회는 성금캠페인 이외에도 미래대학을 실현하기 위한 방향을 자문하고 지원하는 역할도 한다. 이태원 사무총장은 "재계·의료·문인·언론·문화예술·교육·체육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초빙한 명망 있는 미래위원들에게 현재 경희에서 추진 중인 연계협력 클러스터의 발전방향을 자문받고 참여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최신원 동문, 명예철학박사학위 수여

최신원(경영학과 72학번, SKC(주) 대표이사 회장) 동문이 12월 19일, 명예철학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최 회장은 2000년 SKC(주) 회장으로 부임하면서 '변화와 혁신, 소통'을 강조하며 기업 규모를 4배 이상 성장시키는 등 세계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나눔의 리더십을 실천해왔다. 2004년에는 사재를 출연해 장학재단을 설립했다. 최근엔 경희미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아 경희의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81·82학번 자생 동기회 발족

1981학번과 1982학번 동문으로 구성된 '경희라이언 812클럽'이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지난 12월 8일 서울캠퍼스 평화의 전당 로비에서 개최된 발대식에는 조인원 총장과 부총장단, 81, 82학번 동문 100여 명이 참석했다.

81, 82학번 동문들은 동기 모임을 자발적이고 지속가능한 상생의 네트워크로 정착, 발전시키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경희라이언 812클럽' 추진을 준비해왔다. 812클럽은 81, 82학번 전원(학사와 전문학사 과정)을 대상으로 하며 동문 관계 강화는 물론, 기금 모금을 통해 대학 발전을 지원한다. 지속가능하고 자생적인 성장을 위해 자체적으로 수익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위원장은 정일권(전자공학과 81학번) 동문이 맡았다.

2014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박사 217명, 석사 1,294명, 학사 3,978명 배출
송하온, 이재경, 이종오 등 22명 학부 졸업생 총장상 수상

2월 12일 서울과 국제캠퍼스에서 2014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이 개최됐다. 이날 박사 217명, 석사 1,294명, 학사 3,978명이 학위를 받았다.

2014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이 2월 12일 서울과 국제캠퍼스에서 거행됐다. 올해로 63회를 맞는 전기 학위수여식에서 일반대학원 박사 189명과 석사 592명, 특수대학원 박사 28명, 석사 702명이 학위를 받았다. 3,978명의 학사와 1명의 명예학사도 배출됐다. 서울캠퍼스 평화의 전당에서 개최된 학위수여식에는 조인원 총장, 김용철 경희학원 이사장 등 3,000여 명이 참석해 졸업생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조인원 총장은 졸업식사 '성취의 여정, 행복의 지평'에서 더 나은 대학과 사회의 미래를 위해 준비 중인 '경희미래리포트' 중간보고서 내용을 소개했다. 경희미래리포트 준비를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에는 1만 4,000여 명이 참여했다. "설문조사 문항 중 하나인 '나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인가?'에 '행복'이 40%로 압도적인 선택을 받았다"고 전한 조 총장은 "이렇듯 인간 의식의 심연에는 개인의 행복을 향한 정념이 있다"고 말했다. 조 총장은 "재물과 명예, 권한에 기댄 행복은 '획일주의'의 또 다른 위험"이라고 경계한 뒤 "인간은 사유 확장과 의식 개방을 통해 행복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 과정에서 내가 좇는 행복과 더불어 타인의 행복, 우리 모두의 다양한 행복의 가치를 현실로 이어주는 공동체 문화가 중요하다는 사실도 상기시켰다. 마지막으로 조 총장은 졸업생들에게 "개인적 차이를 승인하고, 상생문화를 찾아 나서는 일, 공감과 합의에 따른 정의를 세우고, 그 위에 더 나은 인간의 길을 열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의 행복을 지속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우주와 자연에 공명하는 행복의 지평을 열어갈 것을 당부했다.

학위수여식에서는 졸업생 인터뷰 영상 '경희의 사랑, 꿈, 희망, 도전'이 상영됐다. 영상에서 임진웅(한의학과 09학번) 학생은 "한의학 연구자가 되는 것이 꿈인데, 대학에서 지원해주는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하고, 논문을 쓰면서 꿈에 다가갈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동진(건축공학과 07학번) 학생은 "경희대학교에 입학 후 인생이 변했다"면서 "경희에서 배운 경희정신인 '창의적 노력', '진취적 기상', '건설적 협동정신'에 따라 세상에 적극적으로 도전했다"고 밝혔다. 그는 "뮤지컬 배우, 브라질 아마존 정글 마라톤, 몽골 대륙 횡단 등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며 스스로 인생을 건설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 송하온(국어국문학과 11학번), 이재경(언론정보학과 11학번), 이종오(태권도학과 11학번) 등 22명의 학부 졸업생이 총장상을 수상했다. 최우수 학위논문상은 송은주(회계학과 08학번), 원태웅(나노의약생명과학과 10학번), 김현수(의학과 10학번) 등 5명의 대학원 졸업생이 받았다.

“정상을 향한 혁신과 협력 - 위상과 책임행정”

2015학년도 1학기 합동교무위원연찬회, 연계협력 성공 위한 행정 혁신 필요성 공유
조인원 총장, “책임행정으로 대학 핵심가치 더욱 강화해나갈 것”

2015학년도 1학기 합동교무위원연찬회에서 연계협력을 실현시키기 위한 행정 혁신 방안으로, 책임행정 체제 구축이 논의됐다.

2015학년도 1학기 합동교무위원연찬회가 ‘정상을 향한 혁신과 협력-위상과 책임행정’을 주제로 지난 2월 4일 광릉캠퍼스에서 개최됐다. 경희는 ‘세계적인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학문간 경계를 뛰어넘는 연계협력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번 연찬회에서 조인원 총장과 부총장단, 교무위원, 의료기관장, 부속기관장 등 60여 명은 연계협력을 성공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행정 혁신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그 방안을 논의했다.

조인원 총장은 인사말에서 “우리의 큰 상상력과 진취적 기상으로 구성원이 염원하고, 사회가 기대하는 경희의 세계적 위상을 반드시 함께 이뤄내자”면서, 이를 위해 “대학의 핵심가치인 교육, 연구, 실천을 더욱 강화하고, 교무위원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임행정’을 구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조 총장은 지난 12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학과 신설을 위한 협정을 체결해 올해부터 융합과학기술학과를 운영한다는 소식을 전한 뒤, “대학의 핵심가치와 국내외 위상 강화를 통해 관·산·학 협력, 글로벌 협력의 활로를 더욱 넓혀가자”고 말했다. “국내외 여러 기관과의 연계협력은 내실 강화 없이는 큰 의미가 없다”고 밝힌 조 총장은 더한층 이를 위한 노력을 배가해 우리 모두의 꿈인 ‘세계적인 대학’ 건설을 함께 이루자고 당부했다. 이어 조 총장은 “대학다운 미래 대학을 향한 가치를 공유하고, 권한과 책무가 균형을 이루는 책임행정을 정착시켜,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 도덕적 해이를 적극 개선하고, 구성원이 이를 통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대학문화를 함께 일구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찬회는 1부 안건 발표, 2부 분임 토의로 이어졌다. 1부에서 남순건 미래정책원장은 책임행정 제고 방향을 발표했다. 그는 “대학 비전, 목표와의 연계성 강화, 명확한 목표 설정, 성과관리,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해 유연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직자 책임행정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무위원들은 책임행정을 통해 위상을 높이고 연계협력을 강화한다면 경희의 더 나은 미래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의지를 공유하고, 대학 목표를 바탕으로 설계한 지표가 책임행정 업무 평가를 통해 성과보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계속해서 대학 행정 혁신을 위해 교원인사, 학사제도, 거버넌스를 주제로 분임토의가 진행됐다. 학사제도와 관련해서는 엄정한 성적평가 운영방안에 초점이 맞춰졌다. 교원인사제도는 계열별 특성과 질적 평가를 반영한 수정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거버넌스는 서울과 국제캠퍼스 통합에 따른 통합행정운영 체계 구축과 인력자원 운영체계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논의 중이다.

대한민국 인재상 2명 배출

임진웅·양유진 학생, 논문·봉사·스포츠기부 등 인정받아
"새로운 도전 통해 더 큰 꿈을 꿀 수 있게 됐다"

임진웅 학생

양유진 학생

임진웅(한의학과 09학번), 양유진(체육학과 09학번) 학생이 교육부의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했다. 임진웅 학생은 연구 활동을 통해 다수의 논문 성과를 내고 다양한 의료봉사를 펼쳐왔다. 양유진 학생은 세계 4대 극한마라톤 대회를 완주하고, 스포츠기부(마라톤) '드림러너'를 추진했다. 이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임진웅 학생은 '한의학을 연구하고 논문을 게재해보고 싶다'는 꿈을 안고 대학에 입학한 후,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쳐왔다. 그간 발표한 논문은 8편에 이르며 제1저자로 참여한 논문은 5편이다. 그가 연구를 처음 시작하게 된 것은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수-학생 협동 학술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다. 교수와 학부생이 관심 있는 전공 분야를 함께 연구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인연을 맺은 교수의 도움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연구를 지속했다. "학부생이라서 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기보다 침, 뜸 등 한의학 분야를 전반적으로 연구했다"고 설명한 임진웅 학생은 "그간의 연구 경험을 통해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게 됐다"며 "전 세계 전통의학 시장을 아우르는 사람이 돼야겠다는 목표가 생겼다"고 전했다.

체육교사를 목표로 스펙을 쌓아오던 양유진 학생은 "졸업을 1년 앞두고 온몸을 던져 도전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마라톤을 떠올린 그는 휴학 후, 달리는 거리를 늘려가며 체력을 기르고 2013 제주 국제트레일러닝대회에 출전했다. 이듬해에는 사하라사막마라톤에 참가했다. 마라톤을 하면서 '달리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를 고민하게 된 그는 '기부 마라톤'을 진행하기로 결심했다. 장애인 육상 선수를 꿈꾸는 중학교 3학년 학생에게 맞는 휠체어를 마련해주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드림러너 프로젝트'를 추진, 1,800km를 뛰었다. 양유진 학생은 "예전에는 취업만 생각했는데, 새로운 도전을 통해 더 큰 꿈을 꿀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기부 마라톤 등 스포츠기부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세계 마라톤 대회에 계속 도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지훈 학생, 대한민국건축대전 대상 수상

학교로 동네 만들기(School as a Neighborhood unit) 출품
"대학 교육 통해 '공공성' 화두 갖게 돼"

손지훈(건축학과 07학번) 학생이 '제33회 대한민국건축대전 국제 일반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그는 2014년 한 해 동안 정림학생건축상, 도코모모 세계대회에 이어 세 번째로 대상을 거머쥐었다. '작은 건축, 동네'를 주제로 열린 이번 건축대전에는 5개국에서 750여 명이 참가했으며, 손지훈 학생은 '학교로 동네 만들기' 작품을 출품했다. "공모전 주제를 접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동네를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는 손지훈 학생은 "어느 도시에나 있는 학교는 체육관, 도서관 등 많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 이를 공유하면 도시의 커뮤니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방과 후에는 학교가 닫혀 있는데, 역으로 생각해 학교가 항상 열려 있고 사람들이 머물러 있다면 감시 효과가 생겨 자연스럽게 범죄도 예방될 것"이라며 "이를 건축적으로 풀어내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손지훈 학생은 '공공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대학에서 배운 지식과 다양한 강연을 통해 '공공성'의 화두를 갖게 됐다는 그는 "머릿속에만 있던 '공공성'을 건축적으로 표현해낼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생각에서 건축적인 완성도를 이끌어내는 교육을 대학에서 꾸준히 받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교수님들께 많이 들은 이야기 중 하나가 건축은 대중과의 합의가 없으면 안 된다, 자신의 생각을 타인에게 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었다"고 전한 그는 이 같은 배움이 가치관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전했다.

김백봉·김동현·고(故) 김종규 교수, 목련상 수상

김백봉 무용학부 명예교수, 김동현 약학대학 교수, 고(故) 김종규 지리학과 교수가 '매그놀리아(Magnolia) 2014'에서 목련상을 수상했다. 목련상은 경희가 추구하는 인류사회의 보편적 가치 구현과 교시 '문화세계의 창조'에 공헌한 구성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교육, 연구, 실천 세 부문에 걸쳐 선정한다. 교육 부문 수상자인 김백봉 교수는 경희대 무용학부를 한국 무용교육과 예술의 산실로 키워내는 동시에 한국 창작 춤의 요람기를 이끌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의약품(한약 포함)의 소화관미생물에 의한 약효발현 기전 연구'를 해오며 전 세계적으로 독창성을 인정받은 김동현 교수는 경희의 연구 역량을 향상시킨 업적으로 연구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실천 부문 수상자인 고(故) 김종규 교수는 경희의 역사 자료를 보존·정리해 경희 역사에 대한 구성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민재 교수,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논문 게재

응용화학과 이민재 교수와 박사과정 한동훈 학생의 논문이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이민재 교수팀은 단백질 분해효소 복합체 '프로테아좀(Proteasome)'이 다공성 나노입자를 통해 세포로 전달되는 방법을 개발했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외부 프로테아좀의 전달을 통해 알츠하이머병의 원인물질인 타우단백질을 선택적으로 세포 내에서 제거할 수 있다. 연구결과는 아직까지 치료 방법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등과 같은 퇴행성 뇌질환의 예방과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일근 교수팀, 나노기술 이용한 골다공증 치료기술 개발

치의학전문대학원 권일근 교수팀이 나노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개념의 골다공증 치료기술을 개발했다. 연구 성과는 미국 화학학회(ACS)에서 발간하는 세계적 나노과학 저널 〈ACS 나노(ACS Nano)〉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울금에서 추출한 커큐민(Curcumin)이 사이클로덱스트린이라는 물질에 강하게 결합하는 사실에 착안, 파골세포의 분화를 억제하고 조골세포의 분화 촉진이 우수한 금나노입자 표면에 사이클로덱스트린을 이용해 커큐민을 결합시켰다. 권 교수는 "이번 금나노입자 개발 연구는 동물실험을 통해 골다공증 치료 효능을 확인한 세계 최초의 연구로, 후속연구를 통해 금나노입자의 특성을 이용한 치과, 정형외과 등 골조직 관련 질병 치료와 골재생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식 석좌교수, 명예(학사)학위 수여

이정식 경희대 석좌교수(Eminent Scholar) 겸 펜실베이니아대 명예교수가 10월 30일, 명예(학사)학위를 받았다. 이정식 교수는 해방 전후기를 중심으로 한 한국과 동아시아 현대 정치사 연구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세계적 석학이다. UCLA와 UC Berkeley에서 학사, 박사학위를 받은 이정식 교수에게 경희가 명예(학사)학위를 수여한 이유는 1951년 한국전쟁 중 피란지 부산에서 맺은 인연 때문이다. 한국전쟁 중 월남한 그는 경희대학교(당시 신흥대학교)를 찾았다. 그는 "소년가장이 됐기 때문에 공부할 기회가 박탈돼 한이 됐는데, 신흥대학교가 그 한을 풀어줬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는 경희대학교에서 졸업하지 못했다. 미국 유학의 기회를 얻어 유학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번 학위 수여로 이정식 교수는 1951년 경희대 입학 후 63년 만에 졸업하게 됐다.

김현진·노태현·서민석·오윤미·서강일·최승지 학생, Peace BAR Festival 공모전 수상

김현진(러시아어학과 12학번), 노태현(영어학부 07학번), 서민석(영어학부 09학번), 오윤미(식품생명공학부 11학번), 서강일(우주과학과 13학번), 최승지(정치외교학과 14학번) 학생이 Peace BAR Festival 2014 공모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Peace BAR Festival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된 공모전은 학생 스스로 '빅 히스토리' 관점에서 인간과 문명을 새롭게 조망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공적 실천의 의미를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태현 학생은 "졸업하기 전에 다양한 경험을 해보기 위해 학교에서 운영 중인 워크캠프와 인턴십에 참여하고 이번 공모전에 작품도 제출했다"며 이 같은 경험이 '나'를 되돌아보는 기회가 됐다고 전했다. 최승지 학생은 "칼 세이건의 책을 읽으면서 '내가 하는 행동들이 미래의 지구를 대변해준다'는 깨달음을 얻고, 처음으로 인류, 우주와 같은 거시적인 주제를 생각해봤다"고 말했다.

손영숙 교수,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국무총리 표창

유전공학과 손영숙 교수가 12월 17일, 보건복지부에서 주최한 '2014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정부포상은 보건의료산업과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연구자 및 개발자에게 수여된다. 손영숙 교수는 신경전달물질 Substance-P(물질-P)가 골수의 중간엽 줄기세포를 가동화시키는 작용기전이 있음을 세계 최초로 규명해 〈네이처 메디신(Nature Medicine)〉에 발표하는 등 줄기세포 분야의 탁월한 연구 업적을 인정받았다.

재학생·동문 등 5명, 2015년 신춘문예 6개 부문 당선

정현우(교육대학원) 학생, 이현우(아동주거학과 09학번) 학생, 최종환(국어국문학과 90학번) 동문, 조창규(국어국문학과 01학번) 동문, 이은이(대학원 국문과 박사과정 수료) 동문 등 재학생과 동문 5명이 2015년 신춘문예 6개 부문에서 당선됐다. 정현우 학생은 조선일보 시 부문, 이현우 학생은 대산대학문학상 시나리오 부문, 최종환 동문은 문화일보 평론 부문, 조창규 동문은 동아일보 시 부문에 당선됐다. 이은이 동문은 서울신문과 세계일보 소설 부문에 동시에 당선됐다.

최석호·이석현·문주현 동문, 자랑스러운 경희인 상 수상

최석호(영문과 62학번, 미국 오렌지카운티 어바인시 시장), 이석현(국제법무대학원, 제19대 국회 부의장), 문주현(회계학과 83학번, (주)엠디엠·한국자산신탁 회장) 동문이 '2015년 자랑스러운 경희인 상'을 수상했다. 총동문회에서 매년 선정하는 자랑스러운 경희인 상은 경희를 빛낸 동문에게 수여된다. 시상식은 1월 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경희사랑 2015 신년교례회'에서 진행됐다.

의과대학 교수 전원, 발전기금 기부

의과대학에서 의과대학 종합교육관 건축기금 1억 원을 기부했다. 이번 기금 모금에는 의과대학 교수 전원이 참여했으며, 기부금은 '글로벌 트러스트(Global Trust) 의과대학 건축기금'으로 적립돼 의과대학 종합교육관 건립에 사용될 예정이다.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김성민 회장은 "의과대학 발전을 위해 전체 교수들이 십시일반 기금을 모았다"며 "제자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기금 모금이 시초가 돼 대학, 병원, 의과대학 등의 발전을 지원하는 기부 활동이 확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2014년 4월 열린 총회에서 매달 교수 일인당 만 원씩 모아온 교수협의회 회비를 대학 발전기금으로 기부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지난해 연말 기금을 대학에 전달했다.

매그놀리아(Magnolia) 2014

매그놀리아 2014가 12월 19일 평화의 전당에서 거행됐다. 매년 연말 열리는 매그놀리아는 경희가 이뤄낸 지난 1년간의 성장과 도약을 되돌아보며 대학다운 대학의 미래를 향한 의지를 공유하는 자리로, 경희 구성원, 동문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1, 2부로 나뉜 행사는 '리뷰(Review) 2014' 영상 상영 후, 목련상 시상, 연계협력 클러스터 운영방안 발표로 이어졌다. 2부 목련예술제는 음악대학 학생, 교수 300여 명이 참여한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무대로 꾸며졌다.

총학생회, '총장과의 대화' 개최

총학생회는 11월 19일 '총장과의 대화'를 마련해 조인원 총장을 초청, 대학 운영과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대학 운영과 관련한 질의에 조 총장은 "경희대학교는 사립대학임과 동시에 학술의 탁월성에 주력하고 학술적 성취가 사회, 세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공적 기관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은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사립대학에서 중요한 것은 창학정신을 이어나가는 것"이라며 '학술과 평화'의 전통을 계승, 교육, 연구, 실천의 창의적 결합을 통해 '대학다운 미래대학'을 향한 목표를 지속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경희미래리포트' 심층 토론회

'경희미래리포트' 포커스 그룹 인터뷰와 심층 토론회가 12월 23일 서울캠퍼스 청운관에서 열렸다. 경희미래리포트는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는 대학과 사회의 미래를 만들어내기 위해 다양한 형식을 도입해 만들어가고 있다. 2014년 6월, 파일럿 설문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소셜 픽션(Social Fiction, 특정 주제를 놓고 함께 상상해보는 대규모 집단 토크), 전 구성원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문화관광산업 등 3개 학과 신설

정경대학 '국제통상·금융투자학과'와 호텔관광대학 '문화관광산업학과', '조리산업학과'가 신설됐다. 입학정원은 각각 50명, 40명, 30명 등 총 120명이다. 신입생은 2015학년도 입학전형에 새로 도입된 특성화고졸재직자 전형으로 선발했다.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은 선취업 후진학의 취지에 따라 특성화(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자 중 산업체에서 3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다.

치과의사·한의사 국시 전원 합격

치의학전문대학원과 한의과대학 2014학년도 졸업생이 국가고시에서 100% 합격률을 기록했다. 제67회 치과의사 국가고시에 치전원 졸업생 71명이 전원 합격했다. 한의과대학 졸업생 121명(기 졸업자 8명 포함)도 제70회 한의사 국가고시에 전원 합격했다.

2014 경희 사랑의 몰래산타

'2014 경희 사랑의 몰래산타'가 12월 24일 서울 동대문구 일대에서 진행됐다. 경희대학교에서 매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개최하고 있는 '사랑의 몰래산타'는 사회 소외계층에게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봉사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학생, 교수, 직원, 일반인 266명이 참여해 홀몸어르신 가정 50가구와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50가구를 방문했다. 몰래산타는 학생들이 기획단계에서부터 참여하고 있다.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 선정

한국 고대사·고고학연구소(소장 사학과 조인성 교수)와 후마니타스 빅데이터 연구센터(센터장 경영학과 이경전 교수)가 '2014년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에 선정됐다.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은 새로운 연구 패러다임과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연구 거점 연구소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전국 고교 교장 공교육 포럼

'전국 고교 교장 공교육 포럼'이 1월 16일 평화의 전당에서 개최됐다. 대학과 고등학교가 소통해 고교 교육 정상화와 대입 발전 방안을 논의한 이번 포럼에는 전국 고교 교장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많은 참가자들은 교육이 변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변화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매그놀리아 스토리 Magnolia Story

매그놀리아 스토리는 대외협력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소액모금캠페인으로, 경희사랑의 마음을 모아 서로 돕고 보살피는 아름다운 나눔의 이야기다. 배려와 존중의 문화를 교내에 확산시키고, 대학의 사회공헌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자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매그놀리아 스토리 캠페인은 크게 장학기금과 사회봉사기금으로 나누어져 있다. 장학기금은 단과대학 또는 학과별 기금으로, 사회봉사기금은 경희사회봉사기금과 경희의료봉사기금으로 구성돼 있다.

매그놀리아 스토리 캠페인을 통해 동문들은 자신이 졸업한 학과나 대학을 지정해 기부함으로써 배움에 대한 열정과 비전은 있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운 후배를 격려하고 선후배 간 유대를 강화할 수 있다. 장학금을 지원받은 후배는 '훗날 선배가 됐을 때 미래의 후배를 돕겠다'는 마음의 약속을 함으로써 기부문화의 전통이 이어지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사회봉사기금은 환경보호, 기아문제 해결, 난민 지원 등 지구적 사회공헌을 실천하는 경희의 각종 해외봉사, 경희지구사회봉사단 활동, 난치병 해소와 무의촌 진료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의료봉사 지원 등에 사용된다.

참여 인원과 방법 및 기금 조성액 현황(2015년 2월 10일 현재)

2010년 10월 말 학교 구성원 중심으로 시작된 매그놀리아 스토리는 교직원과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힘입어 발족 2주 만에 1억 8,000여 만원을 돌파했고, 2015년 2월 10일 현재 25억 6,000여 만원을 모금하는 성과를 거뒀다.

- **조성 금액** : 2,557,919,206원
- **참여 인원** : 2,565명
- **참여 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http://magnolia.khu.ac.kr)에서 쉽고 간단한 절차를 통해 참여가 가능하며, 대외협력처에 직접 방문해서 참여할 수도 있다.
- **문의** : 경희대학교 대외협력처(02-963-4874~6)

경희라이언 일만인클럽

경희가족 기부자 1만명을 위한 **동반성장 커뮤니티 프로젝트**

일만인클럽이란

매월 1만원씩 경희대학교에 기부하는 기부자 1만명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경희를 사랑하는 동문 누구라도 동참하실 수 있으며, 경희 발전을 위해 존재합니다.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졸업생들과 Network 연결고리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동반성장을 위해 계획된 프로젝트입니다.

경희의 미래
인류의 미래
그리고
우리의 미래

이제 교문을 나서면, 사회가 기다립니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미래는 불확실함 그 자체이지만, 새로운 경쟁과 승리의 순간에 '경희'가 함께 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출발선에서 또 다른 도전을 시작하는 졸업생 여러분의 앞날에 27만 경희인 모두의 힘을 담아 응원합니다. 경희 캠퍼스에서 同苦同樂(동고동락) 해 온 소중한 모교를 추억으로만 남기지 마세요. 언제나 여러분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함께할 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에 대한 희망과 활기로 터닝하실 수 있습니다.

일만인클럽만을 위한 Special Service

- 경조사 소식 E-mail 알림 서비스
- 본인 및 자녀 결혼 쌀화환 서비스
- 부모님 상 근조기 서비스
- 기부금 전액 경희발전기금으로 적립 및 운용
- 연말세액공제용 법정기부금 영수증 발행

경희대학교 KYUNG HEE UNIVERSITY

문의 경희대학교 대외협력처(02-963-4874~6)

경희대학교 뉴스레터 제19호

경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대학의 핵심가치를 강화한다는 원칙과 경희의 전통, 정체성을 지켜나가면서 구성원과 함께 '세계적인 대학'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 연구, 실천의 내실 강화, 탁월성 추구를 통해 변화와 창조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2015년에는 연계와 협력을 성장동력으로 한 단계 높은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계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세계적 융복합 학술기관으로서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한편, 교육의 한 축인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경희 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 중입니다. 캠퍼스 종합개발사업 'Space21' 착공, 본격적인 미래위원회 활동으로 '세계적인 대학'을 지원하는 인프라와 재원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 자세한 소식을 전합니다.

2015년 2월 27일 발행 **발행인** 조인원 **편집·발행** 출판문화원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전화** 02-961-0106~8 **이메일** khsd3080@khu.ac.kr **홈페이지** www.khu.ac.kr